

한국전력공사

국내기업 최초 레바논 발전소 사업운영권 수주 중동지역 시장 선점 해외 발전사업 교두보 확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3일 한국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레바논 정부가 발주한 총 8550만 달러 규모의 디아르-아마르(Deir-Amar) 발전소와 자라니(Zahrani) 발전소(시설용량 각 43만 5000kW)의 사업운영권(O&M)을 수주하고 앞으로 5년간 이들 발전소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한전을 비롯한 국내기업이 레바논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아르-아마르 발전소와 자라니 발전소는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각각 65km, 8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바논 전체 발전량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마감한 발전소 운영사업권 입찰에서 이탈리아 Ansaldo, 인도 NTPC 등 7개사를 따돌리고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동지역 해외발전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예정된 레바논 발전분야 민영화 추진시에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바논 전력청(EDL)은 현재 화력발전소 7개와 수력발전소 3개를 운영하고, 연간 88억9300만 kWh(2003년 기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발전량이 총수요량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DL은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 미비와 도전(盜電)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의 이번 디아르-아마르 발전소와 자라니 발전소 운영권 수주는 레바논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전 3호기 422일간 '한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운영능력 우수성 및 한국 표준형 원전 안전성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전 3호기가 2004년 11월 10일 계획예방 정비작업 후 발전을 재개한 후 422일간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기록했다.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이란 원전연료 교체와 예방정비 후 발전을 시작해 다음 연료교체와 예방정비를 위해 정지하기까지 단 한번의 고장도 없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광원전 3호기는 한주기 무고장 운전기간 동안 총 105억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광주시와 대전시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한 석유 1,200만 배럴의 대체 효과가 있으며 특히, 환경측면에서 온실가스를 유연탄에 비해 840만톤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영광원전 3호기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 달성과 관련해 지난 1월 5일 이종재 사장은 "이번 성과는 예상치 못한 한파가 지속되면서 전력 및 LNG 수요가 급증, 국가 에너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결과로 그 가치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자 책임"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최고수준의 설비품질 유지 및 불시정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5년 8월 영광원전 4호기가 기록한 468일간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한데 이어 영광원전 3호기가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원전 운영능력의 우수성과 한국 표준형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력기술(주)

나이지리아 AFAM VI 복합화력 설계용역 계약 체결 전체 역무 총괄수행으로 기술력 및 관리기법 선진화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1월 19일 나이지리아 AFAM VI 복합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기술은 SPDC(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의 EPC 주 계약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주)의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입찰단계에서부터 대우건설(주)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쟁사보다 우수한 기술을 평가받아, 사업을 수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번에 계약된 AFAM VI 복합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은 150MW Gas Turbine 3대, HRSG 3대, 200MW급 Steam Turbine 1대로 구성된 3+3+1 방식의 복합화력발전소로서 총 발전용량은 650MW이다.

발전소의 냉각방식은 Air Cooled Condensor이며, Swichyard는 공기절연 방식의 철구조물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GT 상업운전 개시일은 2007년 3월, 복합운전은 2008년 3월로 긴박한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EPC 주 계약자인 대우건설(주)의 설계용역분야 하도급으로 참여하여, 관련 설비 공급 및 시공을 위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구매지원, 사업주 지원 등 설계관련 총괄역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명실공히 해외복합화력 설계의 전체역무를 최초로 수행한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적인 설계기준과 관리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만큼 국내의 기술력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설계능력을 한단계 격상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설계 관리기법 및 절차도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기공(주)

울릉도 죽도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 시운전 미래 성장동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

한전기공(주)는 울릉도 부속섬인 죽도에 전깃불을 밝혔다. 울릉도가 인근 섬 개척에 나선지 125년만의 일이다.

2005년 8월 울릉군청으로부터 죽도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 설치공사를 수주한 한전기공은 6개월이 지난 1월 26일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본격적인 전력생산에 들어갔다.

한전기공은 이번 죽도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추진했다.

한전기공 신재생에너지사업센터 박섭 소장은 “수주금액보다 한전기공이 독자적인 기술로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을 성공리에 완공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치된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은 10kW급 풍력 발전설비 1대와 5kW급 태양광 발전설비 1기, 그리고 60kW급 비상발전기 1대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축전지 대신 황산과 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니켈수소축전지를 장착한 친환경적인 발전설비이다.

한전기공은 2005년 5월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센터를 발족,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엔지니어링 및 설치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전기공은 이미 지난해 진도군 5개 도서지역 태양광발전설비와 내병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성공리에 완료한데 이어 신안군 만재도 해수담수화 태양광발전설비 시설공사와 진도군 가사혈도 태양광발전설비 시설공사 등을 수주, 추진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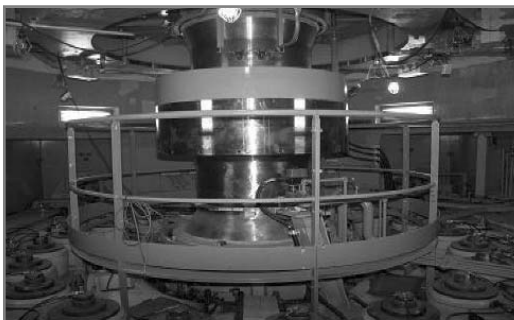
양양 양수 최초 계통병입 및 양수운전 성공적 개시 발전용량 100만kW 국내 최대규모 환경친화형 발전소

한국중부발전(주)는 최근 양양양수건설사무소에서 최병남 건설사무소장을 비롯한 중부발전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양수 1호기 최초 계통병입 및 양수운전 개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양양양수 1호기가 지난 1월 18일 최초 계통병입을 시작으로, 19일 최초 양수운전을 개시했고, 20일 145분간 총 27만톤의 양수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치러졌다.

최병남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공적인 양수운전에 대하여 직원 및 협력업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공기 준수는 물론 완벽한 품질의 양수발전소 건설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자”고 전했다.

올해 8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강원도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 건설 중인 양양양수발전소는 25만kW발전기 4기로 구성돼 발전용량 100만kW의 국내 최대규모 양수발전소로서 어도 및 소수력 설치 등 환경친화형 양수발전소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발전처 국내 산업계 최장 환경친화기업 지정 미래 환경 선도 ‘Global Power Leader’ 구현 역량 집중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발전처는 지난 1월 19일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친화기업 3차 지정을 받았다.

여수화력은 1995년 환경모범업소를 시작으로 환경친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1997년 발전소 최초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0년 환경친화기업 2차 지정에 이어 올해 또 다시 3차 지정을 받음으로써 국내 산업계 최장 환경친화기업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환경친화기업 운영은 1995년 환경부가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 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하에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환경부가 직접 지정하는 환경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환경분야에서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Global Power Leader’ 구현이라는 환경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선진 환경체제 구축 등 4대 환경목표를 수립하여 전 발전소가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경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건설산업 발전 선도 '200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수상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최첨단 친환경발전소 건설 실현

한국서부발전(주)는 지난 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건설일보사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200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및 산업설비(플랜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상은 세계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건설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한국건설산업의 진흥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건설과 환경의 조화를 중심으로 건전한 건설산업문화를 이끄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21세기 건설 비전을 향한 디딤돌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그동안 한국품질경영대상(2005년) 수상 외에 많은 수상실적과 BSC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선도적인 경영혁신 실적 및 전사업장 ISO14001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협약의 대응, 환경정보의 공개제도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올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공기업 부문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석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국내 전력기술 인프라 구축 기술역량 세계 수준 입증

한국동서발전(주)는 지난 1월 18일 당진화력본부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발전회사 최초로 석탄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취득했다.

이로써 당진화력본부는 국제시험소 인정기구 협력체(ILAC)의 국제공인시험소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됐으며, 인정기간은 4년('05.11.29 ~ '09.11.28), KOLAS는 4년의 기간동안 2차례의 사후평가와 한차례의 갱신평가를 실시한다.

한국 공인 시험 검사 인정 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제도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ISO(국제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17025 규정에 의거, 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시험환경 등을 평가해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인정 취득으로 당진화력본부에서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맺은 선진 52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동서발전의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발전회사 최초로 KOLAS 인정을 취득함으로써 연료 및 연소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한번의 시험, 어디서나 통용”이라는 국제슬로건을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으며, 이번 인정이 국내 전력기술 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 3·4호기 탈황설비 최초수전 성공적 완료 20만kW규모 발전소로 제주지역 전력수요 48% 담당

2007년 3월 최종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 3,4호기가 지난 1월 25일 탈황설비 최초 수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탈황설비 수전은 3호기 점화에 대비, 시운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절차이다.

탈황효율 88%이상의 고효율을 자랑하는 남제주 3,4호기 탈황설비 설치로 연소 후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대기환경 규제치(70ppm)보다 낮은 40ppm이하로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남제주화력 3호기는 2005년 4월 드림상량을 시작으로 수압시험을 끝내고 금년 4월 점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제주화력 3,4호기는 총 건설비 3천379억원을 투자하여 20만kW용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중 환경설비인 탈황설비는 총 비용의 9.3%인 31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남제주화력 3호기는 2006년 9월, 4호기는 2007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한국남부발전은 제주지역 전력수요의 48%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05년도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1위 차지 혁신을 통한 대국민 신뢰제고 및 서비스향상 매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2월 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결과 83.1점을 얻어 산자부 산하기관 중 1위, 전체 검사검증기관 중 2위를 차지했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77개 기관을 유형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조사는 한국능력협회컨설팅 등 12개 실시업체가 3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수행해 나타난 결과로, 전기안전공사는 산자부 산하 6개 검사검증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송인회 사장은 “2004년 6월 취임 이후,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이는 공공기관은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혁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산자부 산하기관 중 1위, 21개 전체 공직유관기관(정부투자·산하기관) 중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03년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5.93점으로 최저수준에 머물렀던 전기안전공사는 2004년 청렴도 조사에서는 8.62점으로 전체 대상 기관 중 개선도 2위를 기록했으며, 2005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8.91점으로 산자부 산하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한전KDN(주)

전력선통신(PLC) 기술 전기 원격 검침 첫 도입 시행 디지털 전력량계 및 모뎀 이용 일반주택으로 확대

검침원이 필요없이 디지털전력량계와 모뎀을 이용한 전기 원격검침이 일반 주택으로도 확산될 예정인 가운데 전력선통신(PLC) 기술을 이용한 전기 원격검침이 처음 선보인다.

한전KDN(주)는 지난 1월 8일 한국전력공사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저압 원격검침 시범사업에 PLC용 모뎀을 공급한 데 이어 디지털전력량계 3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대전시 1,500가구를 대상으로 저압 원격 검침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 1,200가구는 무선주파수(RF) 방식 모뎀이, 300가구는 PLC 모뎀이 적용된다. 한전은 2월 12일까지 한전KDN이 공급한 디지털 전력량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전KDN은 이와 관련, 기존 원격검침은 RF방식과 PLC방식 중 RF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PLC방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고층빌딩 등 고압 전력량계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을 모두 도입했으며, 1,200만 가구에 달하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대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표준화되지 않았던 전력량계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날로그 전력량계를 배제하고 PLC용 디지털전력량계와 RF용 디지털전력량계 표준안을 마련, 올해 중 형식승인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 디지털전력량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올해 말부터는 원격검침 도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산업개발(주)

호남사업소 발전사업소 최초 무재해 14배수 달성 기록 '안전 최우선' 산업재해 예방 무재해 운동 지속 전개

한전산업개발(주) 호남사업소는 1994년 1월 20일 사업소 개소 이후 2006년 1월 18일까지(4,382일) 무재해를 기록, 발전사업소 최초로 무재해 14배수 달성에 성공하는 경사를 맞았다.

이에 따라 호남사업소는 지난 1월 19일 사업소 내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14배 달성기념 및 15배 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평환 소장은 대회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발전사업소 최초로 무재해 14배수를 달성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14배수 달성에 만족하지 말고, 15배수 달성으로 타사업소에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사업소 전 직원은 이번 무재해 달성을 계기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안전보호구 착용의 생활화, 성급한 마음이나 불안전 행동으로 인한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예방, 사업장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안전지적의 생활화,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무재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재해 15배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주)

핵연료용 튜브 전량공급 지르코늄 합금 공장 기공 연간 200억원 수입대체 효과 및 해외수출 적극 추진

핵연료 설계 및 제조 전문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지난 2월 7일 임직원 및 에너지분야 주요 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에 소재한 2단계 부지에서 지르코늄합금 튜브 제조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용 튜브 전량을 공급할 예정인 이 공장이 준공되는 오는 2009년에는 연간 2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3년 지르코늄합금 튜브공장을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지르코늄합금 튜브공장은 시설용량이 연간 1,400km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핵연료용 튜브 전량을 공급하게 된다.

양창국 사장은 “튜브 국산화는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원전 부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수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지원제도 기술개발부문 투자 대폭 확대 상생 협력기반 마련 집단에너지 선도기업 역할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단순 우대지원 제도에서 자금 및 판로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부문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약 3,030억원 규모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발주·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에 중소기업에 발주·지원하는 금액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로서 부문별로는 건설공사에 2,340억원, 물품구매 550억원, 기술개발 등 용역에 140억원을 발주·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23일 2004년부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무선통신 열배관감시시스템을 향후 3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협약을 기술개발사인 부영산전(주)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술개발사인 부영산전(주)는 장기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R&D 예산의 일정액을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생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다른 지역난방 사업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집단 에너지부문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K-EMS) 연구개발 사업 본격화 전력계통 운영 원천기술 보유 해외시장 제품 수출 추진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인 'K-EMS'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그동안 태스크포스 형식의 K-EMS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담조직을 갖추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0일 연구개발전담조직인 'IT기술개발실' 발족을 기념하고 K-EMS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수훈 이사장은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연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K-EMS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전력IT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번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이 국산화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에 가장 적합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MS설비를 갖추게 되며, 또한 참여기업과 연구소는 EMS 원천기술을 보유하게 돼 해외시장에 관련 제품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2006 Nuclear for Clean Korea'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새로운 비전 재정립 세계최고 연구기관 재도약 선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6년을 『Nuclear for Clean Korea』의 해로 설정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새롭게 결집하여 대한민국 대표 연구소, 나아가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연구소의 주요 고객과 국민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BSC)' 도입을 전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의 도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1세기 선진 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션의 수립과 비전의 재정립으로 전 직원의 창조적 의지를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연구소의 고객 및 국민과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주)닝쿨·한국미래정책연구원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을 제공하자"는 미션과 "R&D Global Leader"의 비전을 마련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학습과 자원·내부 프로세스·연구성과·고객의 네 가지 관점에 따른 전략 시나리오를 수립, 각각의 관점에 따라 조직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 기술 실용화 확대, 국민복지 증진과 신뢰성 확대 등의 전략 맵을 작성, 실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소가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이의 성공 여부는 향후 연구단지 및 국내 과학기술 유관기관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파워(주)

고효율 발전설비 증설 최고 민자 발전회사 도약 경영시스템 개혁 신기업문화 정립 제2창업 선언

포스코파워(주)는 지난 1월 2일 인천 발전소에서 2006년 시무식 및 CI 선포식을 갖고 올해를 제2 창업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내 최대(180만kW LNG 복합화력)의 민자발전사인 포스코파워는 설비용량에 걸맞는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최고·최대의 민자 발전회사로 도약,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 with POSCO Power)을 열기 위해 현재의 설비능력이나 전력산업에서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고효율 발전설비 증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영시스템의 개혁과 신기업 문화의 정립을 통해 제2의 창업에 매진하기로 하고 그 뜻과 정신을 담은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이날 포스코파워는 “새로운 발전설비 건설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는 이제까지 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층 더 노력하고 회사의 도약없이는 개인의 안녕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승우 사장은 신년사에서 “따뜻한 리더십과 성실한 팔로워십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 ‘자랑스런 직장, 알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가자”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파워의 새로운 로고는 ‘POSCO’를 의미하는 ‘P’ 이니셜과 ‘POWER’가 결합된 형태이며, ‘POWER’의 이미지는 응축된 에너지가 터빈처럼 포스코파워의 힘찬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메인 컬러로 쓰인 블루는 포스코와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를 상징하는 라이트 블루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포스코파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청정에너지 시장의 리더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담고 있는 CI는 단단한 덩어리 감을 주는 동시에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임직원의 미래를 향한 단합된 의지와 건실한 에너지회사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GS파워(주)

자발적협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장 선정 인증 획득 부천열병합발전소 에너지절약 분야 선도적 기업 인정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소는 지난 1월 5일 자발적협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자발적협약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번 수상은 총 900여 대상 사업장 중 부천열병합발전소가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서 회사가 에너지 절약분야에서 선도적 기업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발적협약 이행실적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됨으로써 자금, 기술,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이란 기업 스스로 5개년 동안의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수립하여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협약기업의 이행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 에너지절약 시책을 말한다.



GS칼텍스(주)

日 주차전문회사 'Park 24' 기법적용 「GSE타임스」 설립 향후 5년내 전국 600여개 주차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GS칼텍스(주)는 일본에서 24시간 무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차전문회사 'Park 24'의 선진 주차기법을 도입, 'GS Park24'를 설립하고 국내에서는 'GSE타임스'라는 이름으로 주차서비스 브랜드를 선보였다.

'GS Park24'의 자본구성은 GS칼텍스 30%, 소모석유 20%, 일본 'Park24' 45%, 주차 기기 전문회사인 아마노가 5%를 각각 투자해 지난 2월 2일 서울 역삼동 GSE타워에서 'GS Park24'에 대한 투자조인식을 갖고 대표이사에는 복수제 방식으로 윤재협 사장과 곤도 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GSE타임스는 올해 서울 강남일대 두 곳과 명일동, 분당 등 수도권 4곳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총 600여개의 주차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주차능력 총 3만대와 매출규모 약 53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SE타임스는 자동차 네비게이션과 핸드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 GS Park24 주차장 위치 및 주차가능 대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요금 또한 기존 국내 주차비용 대비 25% 가량 저렴하게 제공되며 낮과 밤 시간대의 주차 요금 이원화를 통해 새로운 주차문화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완배 정유영업본부장은 "주차서비스에 대한 선진기법을 벤치마킹해 주유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GS칼텍스 보너스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차 요금 정산에 활용 하는 등 고객에게 보다 많은 편리함과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il(주)

온라인 음악서비스 'S-Oil Music Station' 오픈 제공 보너스카드 포인트로 음악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S-Oil(주)는 지난 1월 2일부터 고객들이 보너스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로 가요, 팝 등 다양한 음악콘텐츠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음악듣기) 할 수 있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S-Oil Music Station"을 오픈하였다.

이와 함께 S-Oil은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주유소에서 주유고객 5,000명에게 싱어송라이터 Jack Johnson의 새 앨범 "In Between Dream" CD를 무료로 제공하며, 보너스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 10,000명에게는 타이틀곡인 "Better Together" 무료 다운로드 기획도 제공했다.

S-Oil 보너스카드 회원은 홈페이지(www.s-oilbonus.com)에 로그인한 후 "S-Oil Music Station"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하면 되며, 서비스 비용(다운로드 450원/곡, 스트리밍 2,500원/월)은 회원의 적립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S-Oil Music Station"은 다른 뮤직서비스 사이트에 비해 18~31% 저렴한 국내 최저 수준의 요금으로 다양한 음악콘텐츠를 제공하며, 보너스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55명에게 무료 스트리밍 기회(1일 무료 스트리밍 50명, 1주일 무료 스트리밍 5명)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S-Oil은 온라인 음악서비스 S-Oil Music Station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올해 9300억원 투입 원유 4억7200만배럴 확보
개발광구 3개 및 탐사광구 8개 신규사업 적극 추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월 2일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9300억원을 투입, 원유 확보 매장량을 4억7200만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11개의 신규 유망광구 사업에 참여해 1억 3200만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확보한 3억4000만배럴을 합쳐 연말까지 총 확보매장량은 4억7200만배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이른바 자주개발 원유 생산량은 하루 3만6000배럴, 연간 1304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개발광구 3개, 탐사광구 8개 등 총 11개 사업으로 개발 광구의 경우 예멘4 광구와 카자흐스탄 주변탐 광구는 올 3월 지분참여 및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전담 운영조직을 구성,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신규 광구들을 예정대로 확보하면 석유공사는 기존 22개 광구(생산광구 6개, 개발광구 3개, 탐사광구 13개)를 포함, 생산광구 6개, 개발광구 6개, 탐사광구 21개 등 총 33개의 광구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33개 광구 중 석유공사가 직접 운영권자로 참여하는 광구가 11개로 원유 자주개발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특히 기존 광구를 조기 생산체제로 전환해 그 수입금을 신규 광구 확보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11-2광구, 중국 마황산 서광구, 예멘 마리브 액화천연가스(LNG)의 조기 생산을 추진하고, 베트남 15-1광구의 유전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주)

**결식아동 초청 현장학습 공장견학 등 체험 실시
지속적 활동으로 사회성 향상 및 다양한 경험 제공**

현대오일뱅크(주)는 1월 19일 지난 한해 동안 900여명의 직원들이 천원 미만, 만원 미만의 급여 우수리를 모아서 만든 2820만원의 금액을 결식아동 돕기 성금으로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고, 약 150여명의 결식아동을 초대해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초청받은 결식아동들은 회사 임직원들이 일일 부모님이 되어 친절한 안내와 함께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단체 관람하고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을 방문, 정유제품이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사내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급여 우수리 모금 사용처를 임직원 약50%이상이 결식아동을 위해 쓰자고 답했으며, 무엇보다 겨울방학동안 배를 굶는 아이 친구들이 각 반에 한 두 명은 꼭 있다는 것을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결식아동들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펼쳐 결식아동들에게 사회성 향상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SK(주)

페루정부와 LNG 투자협정 체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중남미 해외사업 확대 메이저 기업 도약 발판 마련

SK(주)는 페루 정부와 LNG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페루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 1월 13일 알레한드로 툴레도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페루 리마 남부 팜파 델초리타에서 열린 LNG 투자협정체결식에 SK(주) 유정준 전무, 미국 헌트오일(Hunt Oil) 레이 헌트 회장, 스페인 렉솔(Repsol)-YPF 안토니오 브루파우 회장 등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3개 석유회사 최고위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페루 정부와의 제반 협의와 승인절차 투자협정서에 공식 서명하고, 공장 착공을 앞두고 페루 정부가 공장부지 공여를 약속하면서 프로젝트의 공식 수행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다.

페루 LNG 프로젝트는 페루 카미시아 광구와 56광구에서 개발되는 천연가스를 수송이 용이한 LNG로 바꿔 미국 서부 및 멕시코 지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페루 수도 리마 남쪽 170km 지점에 있는 팜파 델초리타 지역의 521만㎡ 부지에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 헌트와 SK(주)가 공동으로 참여한 페루 LNG 프로젝트는 2009년 하반기부터 매년 페루에서 생산된 LNG 420만톤을 18년6개월 동안 미국 서부지역 또는 멕시코에 공급하기로 지난해 8월 스페인의 렉솔 YPF와 LNG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렉솔도 헌트사의 지분인수를 통해 사업에 참여했고, 현재 지분율은 헌트 50%, SK(주) 30%, 렉솔 20% 이다.

SK(주) 최태원 회장과 툴레도 페루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기간 동안 회동을 가지고, 페루 LNG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향후 양국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한 바 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Three No' 운동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공동 추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전국 주요 교통길목에서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현수막게제 및 홍보물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월 3일 “이번 행사는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대국민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유품질관리원은 올 한해 홍보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 캠페인을 국민운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의 3노(Three No) 운동을 관련업계, 협회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윤리경영 선도기업 도약 선언 고객만족 경영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1일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강력한 윤리경영의지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관련 업계 단체장, 공사 동우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갖고 장기근속자와 모범 직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달영 사장은 “지속적인 고객 만족경영과 기술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 제일의 가스안전 서비스 기업이 되자”며 올해 경영의 최고 목표인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경영방침을 윤리경영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단위부서별로 분기별 청렴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경영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제2도약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선도기업으로의 진입이 필수와 제인 만큼 윤리경영 현좌표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로드맵을 작성, 향후 3년 이내에 윤리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SK가스(주)

가스사고 예방 'SK 통합안전점검 발대식' 개최 거래처 안전성 향상 및 그룹 전체 대외이미지 제고

SK가스(주)는 지난 3월 3일 에너지프라자 포천 충전소에서 김세광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SK(주), SK네트웍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SK 통합 안전점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SK계열 LPG충전소의 불완전요소를 발굴 제거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율 안전관리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SK가스는 충전소와 직매처 등 336개소의 수요처의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SK와 SK네트웍스도 555개소의 수요처의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부, 남부로 나뉘던 안전점검반을 'OK반', '행복반', '날개반'으로 확대하고 전담직원도 4명을 추가했다.

한편, 정의탁 기술안전팀장은 “올해부터 SK계열사의 전 수요처 LPG시설에 대하여 통합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됐다”고 전하고, “SK가스가 확보하고 있는 안전점검 Know-how와 체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전 그룹차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거래처의 안전성 향상과 SK그룹 전체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미얀마 CNG충전소 건설 등 에너지사업 투자 협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시장개척 교두보 기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미얀마 정부와 가스배관 및 CNG 충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관련 투자사업을 협의하였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미얀마 현지법인인 G-TOP사의 사업제안에 따라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가스배관 건설 및 CNG 충전소 건설과 기타 투자사업 등의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제안을 추진한 미얀마 현지법인 G-TOP(Great Top General Trading Co. LTD)사는 1999년에 설립돼 CNG 기자재 수입 및 원목 수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 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미얀마 정부 및 투자기관과의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얀마 정부는 가스배관 및 CNG충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투자사업에 우리나라 천연가스 설비 유지보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전문 기술력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을 가스기술공사측에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G-TOP사의 미얀마 가스 배관망 및 CNG 충전소 건설사업 참여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신종환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기술 및 금융 관계자 등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얀마로 출국해 관련부서 장관 및 정부 각료들과 사업 참여를 협의하였다.

이번 미얀마 사업 건은 수도 양곤에서 만달레를 연결하는 총 840km 구간의 신규 가스배관 건설공사와 CNG 충전소 건설공사로 사업 참여시 기업 경쟁력 및 새로운 시장개척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E1

노사 상호신뢰 11년 연속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사업 등 신규사업 확대 추진

LPG 수출입 전문기업인 (주)E1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이승현 노조위원장이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구자용 사장에게 전달해 2006년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에너지기업과 대기업을 통틀어 첫 타결이기 때문에 E1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협약은 노사간 협약 중 상호 신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E1은 1996년부터 11년 연속 무교섭 타결을 이뤄 오랫동안 다져온 노사간 신뢰가 빛을 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용 사장은 이날 “노조가 11년 연속 임금 위임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며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삶의 에너지를 창조하는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주창했다.

E1은 LG그룹에서 계열 분리 후 2004년 CI를 바꾸고 구자용 사장의 오너체제를 공고히 다져가고 있으며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확정 무연탄 수급안정 주력 생산성향상 및 사업다각화로 경영효율 극대화 추진

대한석탄공사는 금년도에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무연탄 생산량 확대와 재고탄 추가 공급으로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 해외 유연탄개발, 남북석탄협력사업 및 경영혁신 추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경영내실화를 통한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규모 증대로 석탄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석탄공사의 금년도 핵심전략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손익개선 지속추진,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를 위한 해외유연탄 개발사업 등 크게 3대 과제로 대별된다.

올해 생산계획량은 지난해 생산량(123만3000톤)보다 11만8000톤이 증가된 135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신규 광량확보와 채탄능률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으로 생산원가 절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2006년을 '무재해 달성의 원년의 해'로 설정, 안전의식의 고취 및 체질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안전의식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점검의 날, 안전의식 캠페인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연탄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과 국내 석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석탄생산부분의 손익구조를 보완,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유연탄광 직접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캐나다 세익스피어 프로젝트참여 해외자원개발 추진 세계광업회사 어서메이저社와 공동 니켈·구리 확보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1월 9일 세계적인 광업회사인 캐나다 어서메이저(URSA Major)社로부터 지분 15.1%를 인수, 현재 어서메이저社가 추진 중인 세익스피어 프로젝트 니켈·구리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하였다.

현재 어서메이저社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서드베리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세익스피어 프로젝트 개발사업에서 2007년말부터 구리와 니켈을 생산할 계획이며, 동부광체와 서부광체로 나뉜 이 프로젝트의 총매장량은 약 1200만톤으로 이 중 구리와 니켈이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양수 사장은 "세계 최대 니켈 산지인 서드베리 인근에 위치한 세익스피어 프로젝트는 인프라 등의 개발여건이 매우 양호해 개발사업 참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세계적 광업회사와 공동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니켈·구리의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진공은 오는 2013년까지 구리의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카엔덴, 페루 셀렌딘, 몽골 토그록 등 3개의 탐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는 필리핀 라푸라푸 사업에서 연간 구리 1만톤, 아연 1만4000톤, 금 1만5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LS니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마루코나 동광개발사업에서 2억톤의 대규모 동광을 추가로 발견해 총 4억톤 구리 매장량을 확보, 2009년부터 본격 채광에 들어갈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응 CDM(청정개발체제) 인증원 개원 해외인증 기회확보 및 온실가스 검증사업 본격 추진

에너지관리공단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CDM(청정개발체제) 인증원을 이사장 직할의 독립부서로 개원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DM 집행위원회 22차 회의에서 CDM사업을 인증하는 기구로 지정받아 온실가스 부문에서의 인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며, 이번에 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온실가스 검증사업에 나섰다.

CDM인증원은 지난해 강원풍력단지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역시 국내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부문 CDM사업들에 대해 인증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 공단의 인증능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해외 인증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감축의무를 받게 될 때, 이러한 의무이행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 인증분야도 현재의 에너지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수송, 폐기물 등 전분야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中 장강수리위원회와 『수자원 기술협력 MOU』 체결 통합 수자원관리 분야 정보기술 교환 및 공동 연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20일 대전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장강과 중국남서부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중국수리부의 하천관리 조직인 장강(長江) 수리위원회 蔡其華(Madam, Cai Qihua) 위원장과 수자원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하천유역관리에 주안점을 둔 수자원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홍수조절, 재해경감, 댐 건설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 그리고 오염하천과 하천 수질개선 선진기술의 적용, 수환경의 보호와 수질 오염 통제에 관한 국민 인식의 신장, 하천 수질 개선을 고려한 통합 수자원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공동연구사업 및 전문가 교환근무를 수행하며 남수북조사업 등 관심분야에 대해 서로 공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94년 황하강 지류 분하강유역조사를 시작으로 산사댐 건설현장에 기술자를 파견하는 등 수자원 분야 전반에 걸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포스코

**글로벌 리딩기업 조직역량 혁신 로드맵 실행 확정
핵심인재 조기발굴 선진화 등 전략적 육성 적극 추진**

(주)포스코는 세계적으로 보편 타당하고 경쟁사보다 우월한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HR부문을 중심으로 기획·마케팅·조업 부문이 공동 참여해 혁신의 로드맵을 준비,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글로벌 포스코에 부합하는 조직제도를 갖추기 위해 RAI(Res-ponsible, Account-able, Informed) 차트를 도입, 개인별 책임권한을 명확히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혁신한다.

RAI 차트는 부서내 모든 업무에 대해 개인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책임권한표'로 이를 통해 직책보임자의 직접 수행업무와 담당자의 책임업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계층별 교육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전사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RAI 차트와 함께 경영조직구조를 혁신하고 의사결정체계를 선진화하고 부문별 책임업무 수행체제를 강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임원제(Chief Officer) 도입, 분사 스태프 부문의 조직계층 1단계 감축 등 조직체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공정평가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적(MBO)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평가 수준 진단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포스코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고 연구원 수준의 전문엔지니어를 체계적으로 키우며, 회사 주도의 경력관리와 교육을 통해 핵심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고급 기술전문가에 대해 철저하게 성과관리기로 하였다.

두산중공업(주)

**세계 최대규모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플랜트 건설 수주
대내외 기술력 인정 중동시장 진출 유리한 입지 확보**

두산중공업(주)는 지난 1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8억50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쇼아이바 담수 플랜트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EPC 방식으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제다시 남쪽 110km 지점에 건설되는 쇼아이바 3단계 프로젝트는 하루 담수 생산량 88만톤의 담수 플랜트와 917MW 규모의 화력발전소 3기를 건설하는 공사로 생산된 담수와 전력은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 공급된다.

쇼아이바 담수 플랜트의 물 생산량은 하루 300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설된 세계 담수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지금까지는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바 2단계,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프로젝트가 각각 50여만톤으로 최대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민자담수발전(TWPP, Independence Water & Power Producer) 사업으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 공사가 발주된 지난해 7월부터 뱅기에, 영국 등의 세계 유수업체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두산중공업 담수 BG장 박윤식 전무는 “두산중공업의 원모듈(One-Module) 증발기 제작기술, 하이브리드 공법에 의한 경제성 제고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하고, “이번 수주로 사우디 뿐만 아니라 중동 주변 국가의 민자담수발전 사업 수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효성

자발적협약 체결 전사적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시행 고효율 저비용 설비 개발 및 대체에너지 적극 추진

(주)효성은 고유가와 환율급락 등 경영외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본부격인 '전략본부' 지휘 아래 비상경영체제를 수년째 가동하고 있다.

효성은 최근 몇년간 국제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자 경쟁력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효율 전동기, 천연가스 충전설비 등 고효율 저비용 설비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각 사업장이 정부와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ESCO(Energy Service Company) 투자 등을 통해 2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력연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십아전력을 축적해 놓았다가 주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수축열시스템을 자체기술로 개발해 전력비의 10%이상을 감축했으며, 장치산업의 특성상 많은 전동기, 변속설비가 필요로 하는 공정에 대해 고효율모터로 교체하는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작은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성은 현장내 전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했으며 점심시간 사무실 전등 및 PC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 사업장 내에서는 에너지 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이용실적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절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 패트를 제도를 실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효성은 고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중국 상하이에 자본금 3천만달러 규모 지주회사 설립 '차이나 리스크' 대응 효율적 지원 및 신규사업 추진

현대중공업(주)는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건설장비, 중전기 등 기존 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올3월 중국 상하이(上海) 푸동(浦東)지역에 자본금 3천만달러(약 300억원) 규모의 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중국 지주회사는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리스크 대응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신규사업을 개척해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게 된다.

또한 현재 베이징(北京)·창저우(常州)·양중(揚中)·옌타이(煙臺) 등 4개지역에서 운영 중인 생산법인의 통합 재무관리, 홍보, 법무, IT업무 지원을 담당해 중국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 내에 R&D센터를 구축해 중국내 우수인재를 활용한 현지 지향형 연구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증가하고 있는 중국내 원자재 및 기자재 구매센터의 기능도 지주회사에서 하게 된다.

이 지주회사는 현지 법인 및 본사 생산 제품의 판매 및 A/S 업무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등 중국내 영업력 강화 역할도 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장쑤성(江蘇省) 창저우시 및 베이징에서 굴삭기 등 건설장비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장쑤성 양중시에 중전기기 생산·판매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했고, 이어 산둥성(山東省) 옌타이시에 산업용 보일러분야 합작법인을 세우는 등 현재 총 4개지역 5개 생산법인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대구도시가스(주)

中 산동성 르자오시 50만톤 LNG인수기지 건설 에너지사업 중국 본격진출 글로벌기업 이미지 확보

대구도시가스, 경북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기업을 계열사로 둔 대성그룹은 국내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LNG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성그룹은 최근 중국 산동성 르자오(日照, Rizhao)시(市)로부터 50만톤 규모의 LNG인수기지(LNG receiving terminal)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승인(principle approval)을 받았다.

르자오시에 건설되는 LNG인수기지는 대구시 정도 크기의 도시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총투자비용은 3천만달러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대성그룹은 2006년 하반기 인수기지 건설을 시작 오는 2008년 건설공사를 완공한 뒤 천연가스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성그룹은 천연가스인수기지를 건설한 뒤 기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기지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중국 최대의 에너지 회사인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산하 Sinopec Shandong Shihwa가 20년간 전량 구매의사를 밝혀 판로도 확보된 상태이다.

르자오시 LNG인수기지 건설은 국내 에너지업계에서 중국진출 계획을 가장 먼저 구체화한 것으로 진일보한 성과이며, 국내 도시가스 산업이 중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앞세워 몽골진출에 성공한 대성그룹은 'OUR Q' 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통한 중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주)

'Global Engineering Leader' HEC 2010 달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해외사업 전문능력 향상

현대엔지니어링(주)는 지난 1월 2일 이종화 사장을 비롯해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사옥에서 2006년도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이종화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05년은 경영전반에서 건실한 성장을 통해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내실있는 경영성과를 이뤘던 한 해”라고 말하고 임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종화 사장은 2006년은 'Global Engineering Leader'가 되기 위한 비전 실천의 첫 번째 해로써 '비전 HEC 2010 달성 기반구축'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첫째, 엔지니어링 핵심역량 강화 둘째, 해외사업 전문능력 향상, 셋째,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종화 사장은 기술력, 인재, 재무건전성 등 3대 성장동력을 통한 비전 달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력 향상과 인재양성, IT 인프라 등의 역량강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앞으로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수익성 위주의 EPC 사업을 수행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삼성엔지니어링(주)

올 매출 1조9천억원 2008년 2조8천억원 비전 제시
중동시장 설비투자 확대 및 동남아 신규사업 적극 추진

삼성엔지니어링(주)는 올해 매출 1조9000억원, 2008년 2조8000억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신규 수주 2조 1000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2006년과 2007년 각각 2조5000억원과 2조8000억원을 수주하고 2008년에는 3조6000억원을 수주, '신규 수주 3조원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주잔고를 올해 2조 80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2008년에는 3조9000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이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화공플랜트 시장이다.

지난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도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5년 이상 플랜트시장의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화공부문에서 인도 LAB와 사우디 B-1 프로젝트의 공기단축 등으로 수익성이 제고되었으며, 위험관리 강화로 원가율이 개선되고 선별수주로 수익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같은 시장 호조세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 1조9000억원, 영업이익의 1250억원, 당기순이익 1088억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규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고부가가치 플랜트 중심으로 선별 수주함으로써 수익성 극대화도 병행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아주대와 에너지분야 공동연구 협력 MOU 체결
에너지·자원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 상호협력 증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아주대학교와 에너지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활동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2월 1일 에경연 방기열 원장과 아주대 박재운 총장은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에서 국내 에너지·자원 정책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내용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주대 박 총장은 “국내외 에너지 자원 및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에경연과 앞으로 공동연구 등 더 밀착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방 원장 역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에너지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아주대와의 MOU 체결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학문과 정보의 교류는 물론 시설의 공동활용 및 인력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앞으로 에경연 연구원 이 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출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0년까지 세계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공신력 및 국제화 제고 등 핵심역량 강화 중점 추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올해 안전규제에 대한 공신력과 효과를 높여 국제화를 제고하고 핵심역량의 조직화를 꾀해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규제 공신력 제고, 안전규제 효과성 제고, 안전규제의 국제화, 핵심역량의 조직화를 추진전략으로 세워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안전규제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법령에 따른 국제수준의 기술기준과 규제지침을 제도화해 안전규제 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면허시험제도를 운영·관리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요원에 대한 자질 및 자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환경방사능감시를 위해서 해수중 방사능 농도 조사와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신규 원전에 대한 정보처리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원전부지에 대한 지진감시망 및 통합지진 관측망을 연계해 실시간 지진을 감시하고 GUI기반 확률론적 지진해도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피폭방사선량 평가사업을 위해 종사자안전관리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판독업무자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사자 안전관리기반을 확립한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자력 안전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한국기계연구원

50nm급 나노공정용 측정 및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 세계 최고수준 기계적 물성 측정기술 최적화 확보

기관위에 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임프린트리소그라피 공정을 50nm급 이하로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나노공정용 측정 및 평가 원천기술이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마이크로응용역학팀(팀장 이학주)은 과학기술부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라피 공정의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적 물성 측정기술을 확보, 상용화 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각각 알앤비 및 PSIA에 기술이전 했다.

이번에 상용화한 기계적 물성측정 기술은 기관 제작 공정 소재의 인장 복원력이나 점탄성, 피로(반복하중), 열팽창, 점착 등의 특성을 50nm 이하 수준에서 측정해 패턴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나노공정 최적화 기술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초정밀 미소인장 및 피로 시험기를 자체 개발했다. 이 시험기에는 5nm의 분해능까지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비접촉식 변형률 측정장치(ISDG)를 장착했다.

또 기존의 물성 측정에 쓰이던 외팔형 탐침이 표면을 분석할 때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공정을 이용한 마름모꼴 대칭형 나노 탐침도 새로 만들었다. 평면 미끄럼 방지 기술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이학주 팀장은 “패턴 형상 구조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물성 관련 DB 150건도 함께 확보했다”며 “메모리 디바이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립 40주년 맞아 동북아 연구중심 새로운 도약 선언 설립이후 2003년까지 약55조원 경제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2월 10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동북아 연구중심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KIST는 이날 서울 하월곡동 본원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채영복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탈리아 등 27개국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행사를 가졌다.

김우승 원장은 기념사에서 KIST 40년 역사의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연구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공개하면서 "올해를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재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KIST가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립기념식에서는 송휴섭, 이호인 박사가 웅변장을 김병홍 박사가 도약장을 받았으며, 김명수·서상희·유영숙·안병성 박사가 각각 포장을 받았다.

KIST는 이날 행사에서 그간의 변천과정 및 산업화에 기여한 기록, 영상물, 유물 및 연구 성과를 선보이는 역사관을 개관했으며, 과학자와 예술가가 협업을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고 이를 보여주는 전시회도 개최했다.

지난 1966년 개원한 KIST는 컬러TV와 디스토마 치료제, 아라미드 펄프, 도시형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통증억제 뇌기전을 규명하는 등 첨단기술을 개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88올림픽 때는 도핑검사를 전담해 기술력

을 인정받는 등 과학기술 이외의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KIST는 그동안 3,600여명의 과학자를 배출하는 한편 5,305건의 특허를 출원해 이 중 3,303건이 등록됐으며 개원이후 2003년까지 약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국내외 표준관련 동향 입수 및 기술교류 확대 제공

대한전기협회는 KEPIC을 통한 전력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KEPIC과 관련한 실무와 자격인정교육, 특별교육, 현장방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KEPIC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KEPIC의 전력설비 적용방법과 문제해결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내외 표준관련 동향 입수, 업무분야별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올해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실무교육에는 설계 및 구매품질보증, 원전기계기기 설계 및 제작, 재료·용접·비파괴검사, 압력기기 설계 및 제작, 원자력전기 및 계측제어, 전기기기 등이 개설됐다.

또 자격인정 교육에는 품질보증 선임감사자 양성, 공인검사 공통, 원자력기계 공인검사, 일반기계 공인검사 등이 있으며, 특별교육에는 전력설비 공조기기(KEPIC-MH), 원전가동중검사, 기기검증 등의 과정을 개설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pic.or.kr) 또는 대한전기협회 전력기준처 KEPIC 교육 담당자(02-6328-6127)에게 문의하면 된다.